

















(文) 右跡을 찾아서  
行 子 光 陵에서  
崔 錫 模

崔 錫 模 生 實 年...  
그 十 年 間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金大煙 (당 十九 年)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長短是非 自勸維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四 國 語 文 雜 錄)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崔 錫 模 十 二 月 十 日







































# 逸波學報

大韓建國高等學校  
 技術部  
 發行 人 智育部  
 編輯 人 智育部  
 刊 紙 部  
 週 刊  
 非 賣  
 電話 0947

## 檄 創刊

副校長 徐商成  
 情熱의主人이다. 그대들은  
 血氣가 冲天에 오르  
 고 奮氣 또한 어느 누구  
 에 못지않다. 每事에  
 힘이 넘쳐흐르고 不  
 義에 激憤할 줄 아는  
 그대들만이 이 나라  
 를 바로잡고 花樣된  
 社會를 건설할 수 있  
 음을 自負하라  
 우리는 일찌기 培道  
 民族의 血統을 지녔고  
 花柳의 음습한 氣魄  
 을 배웠다

## ◎ 今週의 標語

★ 協同精神을  
 發揮하자

앞날이 비록 險難  
 하다 하더라도 勇敢  
 히 싸워 이겨라 싸  
 우다 쓰러지는 限이  
 있다 하더라도 八顧  
 九起 最後의 勝利를  
 爭取하라 現吳에  
 對한 妥協이란 弱者  
 의 贊鳴이다 老我  
 入의 羞恥이다 甘  
 이 살어온 悔두리  
 안에서 自己의 個  
 性을 죽이며 盲從  
 함은 차라리 挫折  
 半이라도 自己는  
 半 爭取하여 살어  
 나가느니만 못하다

★

金言  
 세 사람이 가면 반듯이  
 내스승이 될 만 한 자가  
 있나니 그 동은 天을  
 가려서 雲을 지니라 孔子

앞날을 勇猛스럽게  
 開拓하라 무언의  
 든지 하면은 이루어  
 어진다 보라!  
 그대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라 보라  
 능숙한 모습이다  
 壯한 態勢이다  
 精은 나에게는 不  
 可能이었다 그  
 대들의 精어온 實  
 자취는 永世에  
 남을 것이요 尸文  
 를 創造한다 寸  
 步도 讓步치 말  
 고 突進하라 그  
 대들만이 末日의  
 主人이요 새 나라  
 의 主人翁이다

## 視聽片片

◇ 文明의 源泉  
 은 意思를 表  
 示할 수 있는 文  
 字의 創案으  
 로부터...라  
 는 것은 帝載以下  
 의 말씀이고...  
 ◇ 속시원하게 말하  
 자면 質時代 簡  
 素化時代 乃至 사  
 자오임 時代에 단  
 연 首席을 차지  
 될 述記文化의 必  
 要件에 必까지 着  
 眼한 燈불밀 學  
 友들이 과연 無  
 視 못할 存在라는  
 것이 물시다  
 예! 花蘭香盛하고  
 滿花芳暢한 佳節  
 에 自然을 벗하  
 여 云云...하는  
 公式的 詩句의 味

생림이 아니라 낮  
 세상 밤세상 두  
 루 시달리는 文  
 化峰의 先驅者들  
 은...  
 ◇ 정말 自然에 忠  
 주리던지 지난  
 野遊會는 兼分數  
 映의 百% 效果를  
 내었다는 말씀이 을  
 시다 모두 厚德한 선  
 校長先生以下 여러  
 先生의 德分임도!  
 ◇ 口味에 당기는  
 것이 또 하나 있습  
 죠. 다름아니라  
 그래 벼락갑두  
 라는 것하구. 十七  
 人의 포로단"이라  
 는 것 그저 참 좋습  
 다다 그저 재발  
 더 두말구 한달에서  
 더 번만이라도 어떤







옆에서 본 速記

速記 課長 金震熙

俗談에 「書堂가 (狗) 三年에 風月을 읊는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쓰히는 境通는 흔히 남을 嘲弄하거나 嘲笑거리로 삼을 때에 많이 쓰히는 말이나 善意로 解釋한다면 같은 種類의 環境에 長時日 머물러 있으면 則 則 아무리 技能하고 微物인 存在 일지라도 조금은 얻는 뜻이 있다 면 뜻으로 될 것이다 速記技術人이 아닌 나도 偶然한 機會로 速記入과

자주 接觸을 할 수 있는 職場을 拂하 게 된 것이 因緣이 되 어 題目 그대로 十年가까운 時日을 費해서 速記를 보고 있는 동안에 제법 速記에 對해서 아는 點하는 自身을 發見할 때에 前示한 俗談이 나의 腦裏를 스치게 되어 나의 所謂 堂狗式 速記의 所 對하여 苦笑할 兼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速記가 그 業務를 相當할 수 있게 된 것이 八·一五 解放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勿論 解放前에도 우리 速記術이 研究되었고 講習會 등에서 速記를 利用한 것은 事實 이기마는 速記術의 體系가 未備한 狀態에 있었 다 따라서 講習會의 速記를 한 다 하더라도 三·四人 이 速記를 하여 가지고 이것을 다지 續合하여 때 을 하여 내놓는 程度이어서 現在의 速記能力者라

자난 大일野 遊會를 光陵에 서 열었는데 몇 일 前부터 은 근히 注目한 것은 女丈夫 紅面靨의 기 熊勢인 지라 부라 부라 第一線을 占據한 幹部 將勇將들은 會員을 代表(?) 하여 其 洗鍊된 雄辯과 는 概念에 符合되는 速記入材의 出現은 期待할 수 없을뿐 만 아니라 그외에 日帝의 毒한 朝鮮 毒林殺 政策을 우리 速記術의 殘廢의 素地를 余地없이 封鎖하였으니 우리 速記術은 가장 後進된 채로 解放을 맞이하게 되었다

별별 교대로서 野 遊會 特別 參席 要請 에 對하여 公私의 인 見地에서 要請 (? ) 과 說得은 則을 離하지 않아 結局 滿日만에 그 貴重한 參席을 許諾받게 되어 一大 喜 面에 觀者까지 는 좋았는 데... 向題는 其를 日野 遊會 當日 沃二兵에 解二兵에서 紅面靨가 外 邑을 警시한 이 가외도 그 럼자 커녕 必새도 나 지않이 그날 會進行役 員들은 勿論 先韓인 紅二兵가 사들까지도 서리를 맞고 앞으로 總會 때 任 要請 信任 洗札를 받을 것 같은데 原因은 職責不履行이라나 眞을 恐할 것이다 말안들어서나



수필

나와 五月

이른 봄 하늘도 어  
 님 뜻 무거워지고 五  
 색이 彌漫하든 꽃송  
 이 香氣보다는 버려  
 가 노래하는 옥어린  
 綠陰이 그리웁다  
 五月은 늦은 봄이  
 다  
 나는 五月에 山을  
 찾아 구름 끝으로  
 달고 먼 바다를 生寬  
 한다  
 푸른 바다는 선재  
 든지 말없이 흐르듯  
 만 무더운 여름보다  
 차다 잔 겨울보다  
 이 늦은 봄 五月에  
 는 함한 靑年의 血  
 脈같이 움직일 것이  
 다

山.  
 바닷길.  
 바다 —  
 그리고 나는 五月  
 을 노래하며 함한  
 靑年을 讚美로서  
 裝飾한다  
 나는 五月이면  
 詩人모양 하나 —  
 偉大한 藝術家모양  
 山.  
 바람.  
 바다를 마음속에  
 그려 본다  
 五月은 나의 未  
 遺한 벗이다  
 푸른 잔디와 앞이  
 속이진 山.  
 구름을 물고 燦爛  
 한 햇빛을 자랑  
 하는 바람.  
 기운 차게 氣概히  
 흐르는 바다.  
 幸福 勇氣 그리고

希望 속에서 자라  
 는 것은 靑年 五月  
 이다  
 나는 젊음 五月  
 을 丸藏하며 幸  
 福을 느낀다 未  
 遺한 靑年의 生  
 命에 氣象인 五  
 月. 나는 바다  
 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마음껏 마  
 시며 勇氣와 希  
 望 그리고 幸福  
 에 未日을 찾아  
 五月을 祝福하며  
 나에게 求遺한 벗  
 五月이 있기를  
 바란다  
 丙申 五月十一日  
 姜仁奎 啓

短編連載小説  
 女性愛  
 尹汝宰

심판전 설흔한  
 살던 도국민 학교  
 靑年은 교사인 김형  
 달이란 자는 그의  
 불중실한 아내를  
 죽였다는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  
 다 죽 그는 새살  
 난 키여운 딸을  
 잘 보살피지 못  
 하였다는 유감을  
 아내에게 품고 있  
 었던 것이다 형달  
 은 사형선고를  
 받고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재생의  
 순간을 찾으려  
 끊임 없이 생각하  
 는 것이었다 그리하  
 여 그는 이 며

을 품고 새살난  
 키여운 딸의 앞날  
 에 보다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다  
 형달이는 서대문  
 형무소 교수대에  
 오르기 전 一주일  
 을 앞두고 단지  
 자기의 탐담 간  
 수를 만나 보기를  
 갈망하였다  
 간수는 사형인의  
 감방에서 갈이온  
 수호인을 물러가  
 게 했다 형달이  
 는 간수에게 열  
 두권의 편지와  
 이배장의 봉투를  
 줄수 없느냐고 간  
 단한 요구를 했다  
 마침 형달이의 요  
 구는 허락되었다  
 그날부터 형달이



詩

마 음

祖國과

石像 默重한 姿態를 刻안어 본다  
바람이 스쳐가고 구름과 그리고...  
차디찬 물가집이다  
상상히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날  
여윈 마음을 애래운다  
까마키가 날려온다는 傳說이 깃들고  
여윈 가슴에 잠자는 듯 맥이 떨리면  
어두움이 다가왔다  
그러나 나는 굳은 그루의 体温를  
느끼는 것이다  
흐느껴 울고 싶은 마음이다

李 薰 詩

(二面에서 계속)  
이 앓았음을 看取  
하게 되었읍니다  
다음에 出册率에  
있어서는 前期에比  
해 若干의 好報을보  
아 十日現在 〇.三  
%의 落伍率을 示  
顯하고 있습니다

以上の 두가지 뜻에  
서 볼때 習學進度  
나 出册率에 있어서  
는 前期보다 若干  
尙上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習學者들의  
體得 活用率은 適  
히 講場할만한 程  
度의 成績을 올리

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勿論 習學進  
度가 取耳에 比  
해 若干 變遷기  
때문이라는 辯道  
있겠으나 이는  
오직 習學者들  
自身의 練習不足  
에서 오는 成績  
不振이라고 볼수  
있읍니다  
따라서 五期生  
의 優秀性과 後  
輩에의 傳統을  
誇示하기爲해서는  
學生各層가 加一  
層의 奮發과 誠  
意있는 努力을 速  
記學習得에 傾注  
하여주어야만 될것  
입니다

이 는 감방구석에  
배치된 조그마한  
책상에 앉아 밤  
늦을 계속하여  
무엇인지를 썼다  
X X X  
형달이가 교수대  
에 오르기 바로  
하루전날에 마지  
막으로 간수를  
만나갈 요구했다  
감방구석 책상위  
에 이백장의 편  
기 무테기가 높다  
랑게 향여했다  
여보십시오. 제  
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부탁을  
하리합니다 간수  
인 민병구에게  
정중히 말했다  
형달은 다시 계  
속하여 이 세상 사  
람들은 우리들사

이 의 비밀은 알  
지 못할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평범  
한것도 아니며 그  
렇다고 어떤 증거  
가 남는것도 아  
닙니다 당신은  
저의 부탁을 거절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요  
구를 패히 승락  
하여 주신다면  
저는 죽어서도  
행복하게 죽을것  
입니다  
간수인 병구는 자  
기 될수있는데까지  
형달을위하여 도  
아줄것을 약속하  
였다  
계제는 세살나  
어린달아가 있  
읍니다  
(계속)



**楸 問 設**

一 入學後 第一印象은?  
二 本校 卒業後의 希望은?  
三 좋아한 TYPE 의 女性(男性)의 相親 關係를 如何 親睦을 도모할 수 있는 方案  
四 向 趣 音  
五 楸를 對하고 자 有하는 楸向 楸를 設置 하 였읍니다 會 員되지는 不是 한 分도 必 然 否이 否 賴하여 주심으로서 萬이 이 楸向 楸의 使命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올라 이를 通한 親善은 楸此 會 員의 性 性 및 人 自 愛의 交 友를

은 完하게 할 것입니 다

◇... 朴 保 和  
一 次入學해서 是 日 當 速記士나 된 時 매우 自 然 스러웠 지요 그러나 楸 上 배우고 보니...  
二 于 先 바라는 것은 會 會 述 記 士가 되 었 으면 하는 것입니 다

三 小 說 家 的 見 解 는 獨 立 性 性 보다는 別 關 心 的 性 性 가 지고 있는 別 關 心 的 性 性 의 「과 리」 性 性 이 면 中 지 않을 까 否 否 一 夫 一 妻 制 가 最 正 當 的 이 나 許 諾 된 다 면 一 夫 多 妻 도 無 妨 하 겠 지요 그러나 一 妻 多 夫 는 아 必 然 否

五 一 日 日 에 두 번 程 度 會 員 奉 談 會 를 開 催 하 는 것 이 어 麼 가 요 그 리 고 選 擧 의 權 利 은 對 對 的 인 權 利 임 을 可 能 하 는 方 途 의 一 方 이 有 하 는 것 이 입 니 다

◇... 林 亨 圭  
一 選 記 先 生 任 任 의 體 格  
二 大 政 治 家  
三 健 康 을 前 提 로 한 新 心 的 TYPE  
四 理 智 的 인 結 婚  
五 酒 席

**國 會 消 息**  
金 煥 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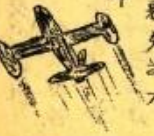
今 年 二 月 二 十 日 會 開 會 第 二 十 二 回 定 期 國 會 三 憲 法 第 九 十 一 條 에 依 하여 憲 法 四 八 九 年 度 預 算 案 을 審 議 하 는 予 算 國 會 이 나 行 政 府 에 서 干 涉 新 年 度 予 算 案 이 國 會 에 提 出 되 어 有 지 않 고 有 否 아 니 라 五 月 十 五 日 正 副 院 議 長 率 頭 因 하여 國 會 는 現 在 休 會 中 에 有 다

二 月 二 十 日 南 院 式 을 舉 行 한 以 來 八 十 餘 日 이 經 過 된 中 에 國 會 의 議 案 中 에 하 次 次 의 會 議 案 에 하 지 不 及 有 다 其 中 에 審 議 中 인 重 要 案 件 은

一 會 議 院 長 與 帝 任 命 案 送 付  
二 國 會 議 院 補 充 案 同 憲 法 第 九 十 一 條 에 依 하여 國 會 院 長 任 命 案 送 付  
三 會 議 院 補 充 案 同 憲 法 第 九 十 一 條 에 依 하여 國 會 院 長 任 命 案 送 付

四 憲 法 第 九 十 一 條 에 依 하여 國 會 院 長 任 命 案 送 付  
五 憲 法 第 九 十 一 條 에 依 하여 國 會 院 長 任 命 案 送 付

現 在 國 會 內 部 分 布 三 自 由 黨 百 三 十 六 名 民 主 黨 三 十 三 名 憲 政 黨 二 十 名 無 所 屬 十 四 名 인 데 國 會 에 아 지 正 式 報 告 는 有 지 不 及 有 다 新 聞 報 道 에 依 하여 衆 所 周 知 有 다 憲 政 黨 會 員 中 에 서 一 人 都 台 四 人 이 民 主 黨 에 入 黨 하 였 는 데 그 外 面 申 請 案 件 中 에 死 亡 有 다 民 主 黨 은 三 十 六 人 으 로 有 效 이 고 憲 政 黨 同 志 會 는 十 九 人 으 로 減 少 되 어 國 會 法 則 에 依 한 田 本 文 步 權 을 喪 失 하 게 되 었 다





講座 欲上 科目 養教

民法의 構造

國民의 生活에 關한 公法 職務을 行한 다는 義를 指한 다는 事

會 員 프 로 필 金容煥(三八才) 오랫동안 남에게 嫌惡을 주지 않고 善은 卽處에 又한 善은 人向으로 待遇를 受할 수 있는 外形

會 員 프 로 필 金容煥(三八才)

오랫동안 남에게 嫌惡을 주지 않고 善은 卽處에 又한 善은 人向으로 待遇를 受할 수 있는 外形

國家의 生活에 關한 公法 職務을 行한 다는 義를 指한 다는 事

在道 某機關에 在職中인 모양... 그리고 우리 學校에 在는 學生들

件은 尙買하고 金主 人의 權利를 賠償 하고 結婚을 하고 또 相續한다는 것

國家의 生活에 關한 公法 職務을 行한 다는 義를 指한 다는 事

은 公法關係이며 前者的 生活 關係인 國民相互 間의 生活關係가

前者的 生活關係인 國民相互 間의 生活關係가 有인 生活關係가

國家의 生活에 關한 公法 職務을 行한 다는 義를 指한 다는 事

은 公法關係이며 前者的 生活 關係인 國民相互 間의 生活關係가

前者的 生活關係인 國民相互 間의 生活關係가 有인 生活關係가

國家의 生活에 關한 公法 職務을 行한 다는 義를 指한 다는 事

은 公法關係이며 前者的 生活 關係인 國民相互 間의 生活關係가

前者的 生活關係인 國民相互 間의 生活關係가 有인 生活關係가

閑談

요즈음에서 市民들이 日曜日에는 高리 當舖한 집구석을 떨치나와 昌慶苑 外로 쏟아져나오는 野 外로 쏟아져나오는 野 外로 쏟아져나오는 野











國會機構紹介

張 惠 根

一部國家를 除外한 大部의 世界各國에 있어서는 그의 뜻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國會라 함은 憲法第三章에서 規定한 國家의 立法機關으로서의 議院과 參議院을 함께 通稱해서 一般的으로 國會라 일컫고 있는 것이나 아

직 우리 民國에 있어서는 議院機構를 보지 못하고 있는關係로 議院의 國會라 看做되고 있다. 二百三명의 選民으로서 構成된 議院에는 먼저 諸案件의 予備的인 議院機關의 十四個의 常任分科委員會와 特別한 案件의 予備審議委員會인 全院委員會가 있다.

國會法第十六條에 依한 各分科委員會를 構成한 法制司法 內務 外務 國防 子算決算 財政經濟 社會保健 交通通信 懲戒資給 國會運營의 各部門으로 나누어져 있다. 選民으로서 選出한 各部門에 各은 十五名 乃至 二十五名이 參與하여

各分科委員會를 構成하고 있다. 兼하여 全院委員會는 二百三名 全議員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議長과 議長의 代理役을 有할 때에 隨時로 말하고는 副議長二人은 本會議에서 選出하게 되어 있다. 議長은 各分科委員會에서 予備審議한 各案件을 最終적으로 廢議

議決한 本會議의 議案을 말게 될뿐 아니라 二百三選民들의 事務的인 面을 도맡고 있는 事務處를 指揮監督하게 되어 있다. 事務處를 管轄掌理하고 있는 事務總長은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任命한 國會의 承詔를 받게 되어 있다. 總長이 掌理하고 있는 事務處에 現在의 約三百五十餘名의 勞務職員을 두고 있으나 이는 아직 不滿한 事務進行을 爲해서는 不足한 數字로 되어 있는 것이다. 其中 一例로서 우리 速記士數를 보더라도 必要人員約二百名에 불과하여 現在 不過三十餘名으로서 말서지바

今週의 標語 忍耐力로서 倦怠를 克服하자

光陵에서 親睦會

盛大히 舉行

光陵에서 親睦會 盛大히 舉行 光陵에서 親睦會 盛大히 舉行 光陵에서 親睦會 盛大히 舉行

光陵에서 親睦會 盛大히 舉行 光陵에서 親睦會 盛大히 舉行 光陵에서 親睦會 盛大히 舉行

光陵에서 親睦會 盛大히 舉行 光陵에서 親睦會 盛大히 舉行 光陵에서 親睦會 盛大히 舉行

光陵에서 親睦會 盛大히 舉行 光陵에서 親睦會 盛大히 舉行 光陵에서 親睦會 盛大히 舉行

光陵에서 親睦會 盛大히 舉行 光陵에서 親睦會 盛大히 舉行 光陵에서 親睦會 盛大히 舉行

(八面으로)



연예서본

速記

(二)

解放과 더불어  
 術을 養成 發展 시  
 術을 實用的 水準  
 까지 올러 놓는 任  
 務는 當時의 速記  
 人에 賦課된 至上  
 命令이었다. 이 任  
 務의 遂行은 오로  
 지 五 六人에 不過  
 관 速記人의 自寬  
 限 期待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解放直後  
 로 말하면 아직  
 우리말 自体가 日  
 帝의 抑壓政策의  
 死境에서 산신키  
 蘇生되어 우리말을  
 活는 데 尙한 存心  
 없고 餘念이 없었던

精神이어서 速記術  
 에 대한 社會的認識  
 이 稀薄함을 보인  
 아니라 速記需要에  
 대한 必要性이 社  
 會文化面에 아직  
 深刻하게 느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文  
 化施策으로서의 速  
 記術의 保護育成  
 策이 等閑視되었던  
 事實을 考慮할 때의  
 革新期의 自覺한  
 速記人의 情熱적인  
 開拓精神만이 우리  
 나라 速記術의 骨格  
 을 이룰 수 있고 그  
 위에 살과피를 붙  
 일 수 있는 唯一한  
 活藥劑가 될 수 있는  
 外담이다. 이것은  
 個人의 利害打算을  
 超越한 技術者로서  
 의 矜持와 先見과

公共心과 努力을  
 土대로한 活動이기  
 때문에 崇高하고 價  
 值있는 事業이 되었으  
 리며 苦勞를 自選担當하  
 시된 與否의 畧은 功  
 勞에 對하여는 先見  
 人으로서의 尊敬과 工  
 勞에 對한 感謝의 뜻  
 을 最大限으로 表現  
 아나 할 수가 없다.  
 이렇던 이時期의 速  
 記術은 社會와는 아  
 주 乖離된 狀態에 놓  
 여 있었고 오직 안일  
 의 希冀을 바라보며 이  
 들 速記先見人의 努力  
 에 依하여 速記術의  
 目立의 基礎工事が  
 着々準備되어가는 時  
 期이었다. 이러한 不  
 過한 環境속에서 各々  
 体系화시킨 速記術이  
 工費用의 要請을 받

視聽片片

理想과 抱負에  
 充溢한 速記  
 校門을 두드리지  
 도 어 번 月餘  
 에.....  
 잘 쓰지는 못하  
 요마는 가, 서, 고, 하  
 면는 어떤지 잠고대살  
 습니다.  
 ◊ 발, 그것이 成長의 証  
 據라요. 그리고 그맛이  
 랍니다. 하지만, 茂  
 馬加鞭이란 말도 快코  
 잇어서는 望되는 줄  
 알아답쇼  
 ◊ 때로는 寸상을 제 무  
 기된 時期는 比較的  
 빨리 到達했다.  
 그것은 南朝鮮 過度立  
 法議院의 誕生하세  
 됨으로 말미암아 解  
 校後 처음으로 速記

릴 程度의 倦怠도 없  
 지 않아 必要한 教室  
 에 발성을 처음 들었는  
 때 첫눈을 자꾸하면 忍  
 耐努力의 座右銘이 記  
 憶을 새롭힌답니다.  
 ◊ 우리의 지금도 不完全  
 에서 살고있고 變란 아  
 니라 速記界에서도  
 不完全성이 5%를 차  
 지하고...云云 하시는  
 脚生님의 말씀은 듣고  
 보나.....  
 ◊ 速記를 배워보려는 意  
 欲外에도 忍耐는 勿論  
 融通성이 尙대 要求됨을  
 느낍니다. 암, 우리  
 人들도 普通인 社會 人들을  
 들을 살아야 합니다.....  
 의 實需要件가 나나  
 나 세 되었고 여기에  
 서 路傍의 돌과도  
 같이 깎이 버렸던 存  
 在인 速記術은 비로소  
 時代の 脚光을 받게 되었다  
 (次号 繼續)











<p>二、韓國唯一의 速記士가 되어 參議院의</p>	<p>一、地獄死後地에나 올 어온듯 부시부시한 用發을 주었으며 速 記가 어렵다는 말이 남모름 공포를 느 쳤다.</p>	<p>一、入學後 執印 數은? 二、本校卒業後의 希望은? 三、종아하는 Y.P.E의 女性(男性) 四、당신의 總值規은? 五、相互商親睦을 도모할 수 있는 方案</p>
<p>가 되어 參議院의 가 前인  지난 世代의</p>	<p>一、地獄死後地에나 올 어온듯 부시부시한 用發을 주었으며 速 記가 어렵다는 말이 남모름 공포를 느 쳤다.</p>	<p>速記士가 되었다. 舊式도 아니고 新式 도 아닌 中國派의 머지 못한 女性 人物이 잘난 大韓民 國의 女子 每週一人一英式 投 稿하므로서 相互人 物의 理解하여 주는 데서... 되겠다</p>
<p>응답 말아서 마치고</p>	<p>會員 姜仁奎 女人们에게서 感受한 제스처가 아난가 그러면 미소狀은 衆 그리면 多分히 洋的인美를 지니고 있다고 나니할 만 安城맞춤이다 그렇지 만 同德女高를 卒 業하고 現在 某大學校 에 在學中인 洪양은 어찌지 모르지 않아서 마치고</p>	<p>三、純眞한 美가 면서 決活 한 女性 四、나의 理想에 符合되 면 人間世界의 1파라다 이스고 본다 五、相互商親睦을 도모할 수 있는 方案은 如何한 가? 相互商親睦을 交 換하면 自然히 親睦이 발생한다.</p>
<p>인 印象을 주며 女性</p>	<p>女人们에게서 感受한 제스처가 아난가 그러면 미소狀은 衆 그리면 多分히 洋的인美를 지니고 있다고 나니할 만 安城맞춤이다 그렇지 만 同德女高를 卒 業하고 現在 某大學校 에 在學中인 洪양은 어찌지 모르지 않아서 마치고</p>	<p>나 完全한 何物도 하더라도 全體가 죽는 何 物도 無何物한 存在 로 判에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全體를 全體로 로 해서 姜仁奎를 全體로 수었다는 觀念에서 인 지 學을 살리고 必 가 능인 우리 國家를 生 각하자 우리 全國民의 幸 福을 위해서 만이 나의 生의 價値와 나의 幸福이</p>
<p>만이 되지 않을까?</p>	<p>女人们에게서 感受한 제스처가 아난가 그러면 미소狀은 衆 그리면 多分히 洋的인美를 지니고 있다고 나니할 만 安城맞춤이다 그렇지 만 同德女高를 卒 業하고 現在 某大學校 에 在學中인 洪양은 어찌지 모르지 않아서 마치고</p>	<p>있을 수 있다는 觀念을 恒常 觀念에 두어 全體 가 살 수 있는 길을 取 하고 우리의 最高理想 目標인 幸福 幸福을 收 得하자 이것만이 現 실이 우리 青年들에게 課題인 것이다.</p>































